

7월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하반기 돌입

후반기 의장 후보 누가 뛰나?

문승우·박용근·황영석 의원 등 3명 거론돼

오는 6월 30일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의 전반기 임기가 종료되고 7월 1일부터 새로운 후반기 의장의 임기가 예고되면서 벌써부터 도의회 의장 출마 후보자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자천 타천으로 후보로 추천되는 후보는 문승우(군산)·박용근(장수)·황영석(김제) 의원(가나다 순) 등이다.

먼저, 문승우 의원은 군산이 지역구로 11대와 12대에 걸쳐 도의원에 당선된 재선의원이며, 11대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역임했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군산에서 4대 김철규 의장 이후로 30여 년간 아무도 의장에 선출되지 않아서 군산시민의 대변자로서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이번에 과감하게 의장에 도전하겠다고 한다.

의장에 당선되면 활기찬 의회, 의원 40명이 모두 의장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의장의

권한을 많이 내려고 하고 환골탈태 변화하는 의장상을 정립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가지고 있다.

박용근 의원은 장수가 지역구로 7대와 11대 12대에 걸쳐 도의원에 당선된 3선 의원으로 후보로 거론되는 의원 중 도의원 선수가 가장 많다.

강점으로는 산업자원부장관 정책보좌관과 기획예산처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중앙정치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예산확보와 중앙정치와의 가교역할을 하는데 자신이 적임자라고 주장한다.

선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 저 의원에게 모두 양보하고 11대 하



문승우 의원



박용근 의원



황영석 의원

반기에 결산 대표위원으로 한번 일한 후 상임위원장 한번 하지 않았고 한다.

리더십 연구에 적극 노력해 전주가 이제 조선의 발상지인데도 태조 이성계를 제대로 연구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어 이성계에 대한 연구로 이성계 리더십 책자를 발간하는 등 연구 노력하는 의원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의장이 된다면 전북특별자치도의

장점을 살려 개인 의원 보좌관제도를 신설해 입법 활동에 더욱 탄력을 받도록 하고, 지역순회를 통한 지역민과 소통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황영석 의원은 김제가 지역구로 4대 5대 6대 김제시의원을 거쳐 11대와 12대 도의원에 연속당선돼 활동하고 있는바 현재 출마 후보자 중 최연장자이다.

김제시청 공무원으로 20년 재직 후 명예퇴직하고 뜻한 바 있어 주민의 대변자가 되고자 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돼 오늘에 이르고 있는바, 행정 공무원 출신답게 행정에 밝다.

오랜 기간 주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오직 주민만을 바라보는 의정상을 구현하고 있는 모범답안 같은 의원이다.

의장이 되어도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의원들 한 분 한 분이 독자적 입법기관이니만큼 의정활동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의회 집행부와 각 의원 간 조그금의 격차도 생

기지 않도록 최대한 편안한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한다. 또한, 전북발전과 도의회 위상강화에 마지막으로 남은 혼신의 열정을 다 바치겠다는 각오다.

도의회 의장은 의원 40명 중에서 선출되는 것이기에 6월 말까지 아직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고, 아직도 가장 많은 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주에서 의장 후보로 나서는 후보가 없는 점이 변수다. 또 다른 의원이 출마를 표할지 알 수 없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는 세 명의 의원 중에서 한 사람이 의장으로 반드시 선출될 가능성이 많다.

도민들은 무엇보다 의정으로서 어려운 도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챙겨서 도민들의 경제 형편이 나아지고 지하는 의정상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민의 권익을 잘 대변하고 의회의 위상을 강화해 일하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의회 상임위 추경예산 심사 진행 중

문건위, 문화체육관광국 대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8일 제409회 임시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했다.

먼저, 이병도 위원장(전주)은 추경 예산안에 세워진 신규 사업들에 대한 미흡한 사전 설명을 질타하며, 향후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하도록 당부했다.

이수진 의원(국민회의비례)은 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 사업과 관련해 2024년 본예산에 삭감된 사업이 6개월 후인 추경 예산안에 다시 세워진 점을 질타하며,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본예산에 정확하게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트플랫폼 찾아가는 미술관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근거를 사유로 들며, 긴급한 사업이 아닌 데도 추경에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국제·전국규모 주요 체육대회 지원 사업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체육 인프라를 확보하고, 체육대회만 간략하게 진행하는 게 아닌 전북특별자치도를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중국 장쑤성 인대와 교류협력 확대 약속

(인민대표대회)

국주영은 전북자치도의회 의장, 2019년 이후 5년만에 만나 양 의회간 우호교류 재개 합의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전주12)은 8일 중국 난징시에서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신창성 주임을 만나 2019년 이후 중단됐던 양 의회간 우호교류를 재개하고 협력분야를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방문은 전북자치도와 장쑤성 간의 자매결연 30주년을 축하하고 양 지역의 교류협력 확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실질적인 교류를 할 수 없었던 의회간의 교류 물꼬를 다시 트고 미래세대 위한 협력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국주영은 의장은 "전북-장쑤성의 자매결연 30주년과 더불어 우리 의회와 장쑤성 인대도 지난 1996년 이후 28년 동안 자매·형제의

연을 맺어오고 있다"며, "50주년, 100주년을 뛰어넘는 영원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혼자 가면 빨리가고 함께 가면 멀리간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의회가 주축이 되어 함께 고민하고 같이 노력한다면 양 지역이 꿈꾸는 멋진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신창성 장쑤성 인대 주임은 "5년 만에 얼굴을 마주보며 손잡게 된 이번 만남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다지게 돼 너무 뜻깊게 생각한다"며, "양 지역은 바다를 마주보고 있는 가까운 이웃이니 만큼 서로의 좋은 점을 배우고 서로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은 8일 중국 난징시에서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신창성 주임을 만나 2019년 이후 중단됐던 양 의회간 우호교류를 재개하고 협력분야를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이에 앞서 의회 대표단은 지난 7일에는 한중 산업협력단지가 조성돼 있는 연청시를 방문해 연청시장과 연청시 금 한중산업협력단지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짐했다.

오는 9일에는 전북-장쑤성 자매결연

30주년 기념 전북도립미술관 소장품 특별전시와 기념식수 행사를 참여하고 난징에 소재한 이차전지 기업을 둘러본 후 돌아올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대표단의 중국 방문에 대한 화답으로 중국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대표단도 오는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도의회 및 전북자치도 일원을 방문해 관심 분야 및 기업을 방문하는 등 상호간의 교류가 본격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만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환복위, 환경복지국 등 대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8일 환경복지국,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진행했다.

먼저, 이병철 위원장(전주7)은 추경 예산에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신심성, 낭비성 예산이 아닌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다화용기 사용 촉진 지원사업과 관련, 도내 장례식장에 다화용기 사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다화용기를 실용성 있고 현실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1회용품 줄이기를 행정에만 그치지 말고 도민 전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농촌폐비닐 처리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 관련하여 실효성 있게 활용되고 있는지 질의하며, 아직도 비닐을 태우는 곳이 있다며 농촌폐비닐을 태우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황영석 의원(김제2)은 섬 주민 여객선 천원요금제 지원 신규사업에 관련하여 기존 사업과의 중복 지원 여부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고, 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섬주민들의 교통비 절약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선화당

관풍각

내아